

노인의 차별경험과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이은아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객원교수

The Effects Elderly's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ense of Loss on Suicidal Ideation

Eun-A Lee

Lectur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ungKy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층화표집하여 노인복지관 10개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4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8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차별경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였다. 둘째, 개인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을 부분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을 완전매개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상실감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사회적 차별경험을 예방하고 노인복지 실천현장에서 상실감 해소를 통해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노인차별, 개인적 차별경험, 사회적 차별경험, 상실감, 자살생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ath that the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sense of loss lead to suicidal ideation by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elderly's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loss. To this end, questionnaire a survey was conducted on 400 elderly people aged 65 years or older who used 10 elderly welfare centers using stratified sampling of 31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Gyeonggi-do. Additionally, a total of 380 samples were finally analyzed excluding dishonest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more individual and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hich are sub-factors of the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 increased suicidal ideation. Second, individu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ere found to have a static effect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partial mediation of sense of loss. Third, the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showed a static effect on suicidal ideation by perfectly mediating the sense of los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sense of loss acts as a risk factor for the elderly's suicidal idea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urgent need for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prevent the elderly's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was suggested,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elderly suicide by resolving the sense of loss in the elderly welfare practice field were suggested.

Key Words : Differences between the elderly, Individual differences experience, Social differences experience, Sense of loss, Suicidal ideation

*This is some excerpt from author's doctoral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Eun-A Lee(364379@hanmail.net)

Received October 6,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6,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2017년 82.7세로, 2030년 남성은 84.1세, 여성은 90.8세로 사상 처음 90세 장벽을 넘게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수명 연장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다[1]. 또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4월 현재 전체 인구의 15.8%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26년 노인 인구가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예정과 204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37.0%로 세계의 최고령국가로 전망되고 있다[2]. 이는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인구의 자살률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언론 보도나 국가통계결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OECD 회원국가 중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노인자살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말 노인 자살현황을 보면 60대 30.8명, 70대 48.8명, 80대 이상은 70명[3]으로 향후 노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노인자살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자살률은 노인자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국내외에서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연구 성과 또한 많이 축적되었다. 노인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성별, 종교, 학력, 배우자 및 동거가족 유무 등)[4,5], 심리·정서적 요인(고독감, 절망감, 우울감, 상실감, 죽음불안, 스트레스 등)[6-8], 사회적 관계요인(사회적 배제, 관계축소, 사회적 고립, 차별경험, 학대경험 등)[4,9-12]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은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나 태도로 자살과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예측지표로써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자살생각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살아가면서 개인적이든 사회적 이유에서든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은 생각이나 태도를 말한다.

최근 노인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3-16]. 노인차별경험은 연령에 근거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적(언어적·신체적·정서적·대인관계적 차별) 혹은 사회적(경제적·대중매체·사회적 재화나 용역의 이용·생활편의적 차별)으로 부당한 사건과 행위에 대한 경험을 말한다[14]. 노인차별 경험 실태조사(200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86.2%가 한 가지 이상의 차별을 경험하며[15], 서울시 노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8년)에서는 노인 가운데 50% 이상이 차별을 경험한다고 조사되었다[3]. 이러한

노인차별은 사회적 규범의 변화, 사회적 부양부담으로 노인의 부정적 인식 증가, 역할 축소 등으로 가족을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 경험한다. 이는 노인에게 고독감, 우울감, 상실감 등 다양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로 낮은 삶의 만족도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9,14,16,18]. 특히,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사물인터넷(IOT) 기술과 인공지능은 노인과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만큼 사회적 환경변화가 노인에게는 또 다른 차별경험과 상실감을 초래할 수 있다.

노인의 상실감은 신체적 기능 감퇴 등의 개인적 측면과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 역할, 물건 등의 사회적 측면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으로부터 느끼는 부정적 감정 상태를 뜻한다[14]. 상실감과 자살생각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실감의 하위요인 중 경제적 상실, 건강상실, 사별상실, 역할상실, 관계의 상실 등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19,20]. 상실감은 노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경험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살생각과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16].

앞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들은 역할상실, 신체적 기능 저하, 경제적 수입 감소 등과 함께 끊임없이 고도화되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정보사회에서 차별경험과 상실감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노인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하다. 또한 노인차별경험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범주화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더불어 차별경험과 상실감은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와 범주가 새롭게 구성되기에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차별경험을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둘째,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노인차별 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중재경로를 밝히고자 한다. 셋째,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의 경로를 분석하고 직·간접효과의 영향관계를 파악한 후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노인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노인차별경험은 상실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 노인의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4.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상실감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노인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Fig.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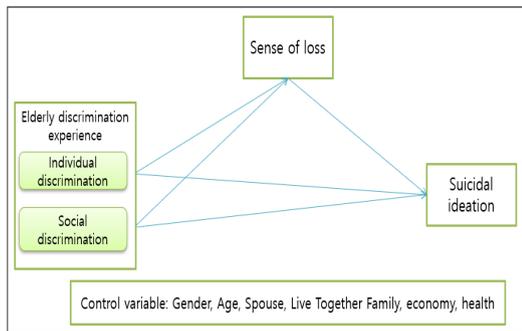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노인 인구비율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31개 시군구를 지역 위치에 따라 경기 북부(4개소)와 경기남부(6개소) 그리고 유형별로 도시형(5개소), 도농복합형(3개소), 농촌형(2개소)으로 분류하여 Table 1과 같이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또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으로 비례층화표집 방법을 적용하였다.

설문조사는 2015년 9월 8일부터 24일까지 조사에 동의한 노인복지관 10개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위치별(경기북부 160명, 경기남부 240명), 유형별(도시형 200명, 도농복합형 120명, 농촌형 80명)로 총 400명을 1:1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380부(경기북부 149명, 경기남부 231명/ 도시형 193명, 도농복합형 109명, 농촌형 78명)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Area Location and Type of Gyeonggi-do

Divide	Area type			
	Urban	Urban and rural	Rural	
Area location	North	Dongducheon, Goyang, Guri, Uijeongbu	Pocheon, Yangju, Paju, Namyangju,	Yeoncheon Gapyeong
	South	Gwangmyeong, Suwon, Ansan, Siheung, Osan, Seongnam, Bucheon, Anyang, Gunpo, Hanam, Uiwang, Gwacheon	Pyeongtaek, Hwaseong, Icheon, Anseong, Gwangju, Yongin, Gimpo	Yeosu, Yeongpyeong

※ ____ 10 Survey area

2.3 측정변수

2.3.1 자살생각

자살생각척도는 Hariow, Newcomb, Bentler(1986)에 의해 개발된 자살생각척도를 김형수(2002)가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번안·수정하여 사용한 5문항 중 '자살 시도' 문항을 제외한 4문항과 서화정(2005)이 사용한 자살생각 척도 가운데 4문항을 추가하여 총 8문항으로 구성했다[21,22].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살생각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 추출하여 타당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KMO=.815, Bartlett's $\chi^2=1489.842$, $p<.001$). 자살생각 척도의 Cronbach's α 는 .775로 나타났다.

2.3.2 노인차별경험

노인차별경험은 Palmore(2001), 김옥(2002), 원영희(2005)의 노인차별경험척도를 기반으로 총 17문항을 구성하였다[15,23,24].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경험 수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노인차별경험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을 추출하여 2개의 요인이 수렴되었으며,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917, Bartlett's $\chi^2=2634.334$, $p<.001$). 노인차별경험의 하위요인으로 개인적 차별경험은 신체적 차별경험과 대인 관계적 차별경험 그리고 사회적 차별경험은 생활 편의적 및 문화의 차별경험으로 나타났다.

노인차별경험의 Cronbach's α 는 .894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하위요인별로 개인적 차별경험의 Cronbach's α 는 .885이며, 사회적 차별경험의 Cronbach's α 는 .849로 나타났다.

2.3.3 상실감

상실감 척도는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까지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이정은(2014), 정미경·이규미(2009), 김후경 외(2007)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총 14문항을 구성하였다[19,25,26].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실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상실감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것만 추출하여 타당도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KMO=.909, Bartlett's $\chi^2=2830.600$, $p<.001$). 상실감 척도의 Cronbach's α 는 .910로 높은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2.3.4 통제변수 :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은 여자 '0', 남자 '1'로,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있음 '0', 배우자 없음 '1', 동거유형은 2명 이상 '0', 독거 '1'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측정하였다. 연령은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의 4가지 범주로 측정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 경제상태는 서열변수로 처리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9.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경로를 확인하고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통제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변수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내적 일관성 검증을 위한 신뢰도 검사(Cronbach's α)를 수행하였다. 둘째,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변수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그리고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노인의 차별경험과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과 Sobel Test로 매개효과와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2은 응답자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다. 성별은 여성 239명(62.9%), 남성 141명(37.1%)으로 여성이 더 많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연령은 65-69세 79명(20.8%), 70-74세는 123명(32.4%), 75-79세는 103명(27.1%), 80세 이상은 75명(19.7%)으로 평균연령은

74.5세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가 있다'는 노인이 221명(58.25%)으로 '배우자가 없다'는 노인 159명(41.8%)보다 비율이 약간 높았고, 동거유형은 '독거노인' 121명(31.8%), '2인 이상 배우자 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259명(68.2%)으로 2배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214명(56.3%)이 '보통이다'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또한 170명(44.7%)이 '보통이다'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80)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141	37.1
	Female	239	62.9
Age	65-69	79	20.8
	70-74	123	32.4
	75-79	103	27.1
	80<	75	19.7
Spouse	Yes	159	41.8
	No	221	58.2
Live together family	Single	121	31.8
	With Spouse & Etc	259	68.2
Subjective Economy	Poor	123	32.3
	Normal	214	56.3
	Good	43	11.4
Subjective Health	Poor	82	21.6
	Normal	170	44.7
	Good	128	33.7

3.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노인의 차별경험, 상실감, 자살생각에 대한 기술통계량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독립변수인 노인차별경험 평균값은 2.33(SD=.660)으로 하위변인인 개인적 차별경험 평균값은 1.98(SD=.715), 사회적 차별경험 평균값은 2.72(SD=.823)이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평균값은 2.01(SD=.683), 매개변수인 상실감 평균값은 2.74(SD=.773)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sics of Major Variables

(N=380)

Variable	Mean	SD	Skewness	Kurtosis	
Discrimination Experience	Individual	1.98	.715	.471	-.404
	Social	2.72	.823	-.256	-.514
	Total	2.33	.660	.033	-.418
Sense of loss	2.74	.773	-.150	-.234	
Suicidal Ideation	2.01	.683	.444	-.322	

3.3 상관관계

Table 4는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 자살생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개인적 차별경험($r=.408, p<.01$)과 사회적 차별경험은($r=.227, p<.01$) 모두 자살생각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 간의 상관관계는 개인적 차별경험($r=.488, p<.01$)과 사회적 차별경험($r=.575, p<.01$)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상실감과 자살생각($r=.409, p<.01$) 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jor Variables

(N=380)

Variable	1	2	3	4
1	1			
2	.485**	.1		
3	.488**	.575**	1	
4	.408**	.227**	.409**	1

p<.01**

1. Individual Discrimination 2. Social Discrimination
3. Sense of loss 4. Suicidal Ideation

3.4 노인차별경험,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노인자살생각에 미치는 차별경험, 상실감의 영향과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자살생각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령, 성별, 배우자 유무, 동거유형,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를 더미변수(성별: 여=0, 남=1, 배우자유무: 배우자 있음=0, 배우자 없음=1, 동거유형: 2인 이상=0, 독거=1)로 처리하였다.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한 분산팽창지수(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와 공차한계(tolerance)를 확인한 결과, 변수들의 값은(VIF) 1.060 ~ 3.539 이하로 공차한계는 모두 .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테스트 결과, D통계량이 1~2 사이로 잔차의 자기상관관계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4.1 노인의 개인적 차별경험,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모델 1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유형,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모델 2에서는 독립변수인 개인적 차별경험을, 모델 3에서는 상실감을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델 1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beta=.201, t=3.859, p<.001$), 연령($\beta=-.186, t=-3.626,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84, t=-3.568,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을 설명력은 11.1%를 보였으며, 회귀모형은($F=7.789, p<.001$)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수 개인적 차별경험을 추가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개인적 차별을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beta=.362, t=7.761, p<.001$). 모델 2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수 개인적 차별경험의 설명력은 23.5%($F=16.341, p<.001$)로 모델 1보다 12.4% 증가하였다. 이는 개인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델 1과 같이 성별($\beta=.162, t=3.321, p<.001$), 연령($\beta=-.147, t=-3.074, p<.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18, t=-2.414, p<.05$)의 영향력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모델 3에서는 매개변수 상실감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상실감($\beta=.232, t=4.185, p<.001$)은 유의미한 결과로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실감은 종속변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데 27.0%($F=17.122, p<.001$)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 비해 자살생각 설명력이 3.5%로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던 개인적 차별경험은 모델 3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이 낮아졌다($\beta=.260, t=5.005, p<.001$). 한편, 통제변수 성별($\beta=.166, t=3.477, p<.001$)과 연령($\beta=-.145, t=-3.108, p<.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차별경험, 상실감, 성별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연령은 부(-)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 남성 노인이 고 개인적 차별경험과 상실감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상실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2 노인의 사회적 차별경험, 상실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모델 1에서는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통제변수

Table 5. Effect of Individual discrimination experience, sense of loss on suicidal ideation

(N=380)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Gender	.284	.201	3.859***	.229	.162	3.321***	.234	.166	3.477***
Age	-.123	-.186	-3.626***	-.098	-.147	-3.074**	-.096	-.145	-3.108**
Spouse	.116	.084	1.117	.156	.113	1.620	.172	.125	1.826
Live together family	.067	.046	.622	-.006	-.004	-.062	-.031	-.021	-.316
Subjective Economy	-.089	-.098	-1.864	-.100	-.111	-2.27	-.052	-.058	-1.167
Subjective Health	-.138	-.184	-3.568***	-.088	-.118	-2.414*	-.056	-.075	-1.533
Individual Discrimination				.346	.362	7.761***	.248	.260	5.005***
Sense of loss							.205	.232	4.185***
F	7.789***			16.341***			17.122***		
R^2	.111			.235			.270		
Adjusted R^2	.097			.221			.254		
Durbin-watson	1.858								

p<.05*, p<.01**, p<.001***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동거유형, 주관적 경제상태, 주관적 건강상태)를 투입하였고, 모델 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차별경험을, 모델 3에서는 상실감을 투입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델 1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를 분석한 결과, 성별($\beta=.201, t=3.859, p<.001$), 연령($\beta=-.186, t=-3.626,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84, t=-3.568, p<.001$)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했다. 종속변수 자살생각의 설명력은 11.1%를 보였으며, 회귀모형은 ($F=7.789, p<.001$)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독립변수 사회적 차별경험을 추가 투입하여 종속변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사회적 차별을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eta=.161, t=3.214, p<.001$). 모델 2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수인 사회적 차별경험의 설명력은 13.5%($F=8.319, p<.001$)로 모델 1보다 2.4% 증가하였다. 모델 1과 같이 연령($\beta=-.179, t=-3.532, p<.001$), 성별($\beta=.186, t=3.603, p<.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152, t=-2.927, p<.01$)의 영향력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6.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sense of loss on suicidal ideation

(N=380)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Gender	.284	.201	3.859***	.263	.186	3.603***	.272	.192	3.915***
Age	-.123	-.186	-3.626***	-.119	-.179	-3.532***	-.110	-.116	-3.457***
Spouse	.116	.084	1.117	.135	.098	1.317	.157	.114	1.614
Live together family	.067	.046	.622	.024	.017	.226	.001	.000	.005
Subjective Economy	-.089	-.098	-1.864	-.081	-.090	-1.732	-.016	-.018	-.353
Subjective Health	-.138	-.184	-3.568***	-.114	-.152	-2.927**	-.067	-.089	-1.769
Social Discrimination				.134	.161	3.214***	-.028	-.034	-.596
Sense of loss							.338	.382	6.390***
F	7.789***			8.319***			13.163***		
R^2	.111			.135			.221		
Adjusted R^2	.097			.119			.204		
Durbin-watson	1.803								

p<.05*, p<.01**, p<.001***

모델 3에서는 매개변수 상실감을 추가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상실감($\beta=.382, t=6.390, p<.001$)은 유의미하였고,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였다. 상실감은 종속변수 자살생각을 22.1%($F=13.163, p<.001$)의 설명력이 확인되었다. 모델 3은 모델 2에 비해 자살생각 설명력은 8.6% 증가하였다. 모델 2에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던 사회적 차별경험은 모델 3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연령($\beta=-.116, t=-3.457, p<.001$)과 성별($\beta=.192, t=3.915, p<.001$)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살생각에 상실감과 성별은 정(+)적인 영향력을, 연령은 부(-)적인 영향력으로 나타나, 남성노인이고 상실감이 클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상실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3.5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상실감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연구결과에서 상실감이 노인의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에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 모델[27]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회귀분석을 하였다.

첫째, 매개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종속변수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매개변수와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상실감이 개인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

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개인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보였으며($\beta=.488, t=10.860, p<.001$), 설명력은 23.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개인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으며($\beta=.408, t=8.694, p<.001$), 16.7%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 종속변수 자살생각에 개인적 차별경험과 상실감을 투입한 결과, 개인적 차별경험이 통제된 상태에서 상실감과 자살생각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beta=.275, t=5.301, p<.001$). 2단계에서 개인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beta=.408, p<.001$)이, 3단계에서는 낮아지는($\beta=.274, p<.001$) 효과를 확인하였다. 2단계의 자살생각에 대한 개인적 차별경험의 설명력 16.7%에 비해 3단계의 설명력은 22.4%로 전체 설명력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54.551, p<.001$). 따라서 상실감이 개인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효과로 검증되었다.

다음은 상실감이 사회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을 매개하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1단계에서 사회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beta=.575, t=13.666, p<.001$), 자살생각의 설명력은 33.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사회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했으며($\beta=.227, t=4.523, p<.001$), 자살생각에 대해 5.1%의 설명력을 보였다. 3단계에서 자살생각에 사회적 차별경험과 상실감을 투입한 결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통제된 상태에서 상실감과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력($\beta=.416, t=7.248, p<.001$)을 나타냈다. 또한 2단계에서 사회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beta=.227$)이 3단계에서 영향력($\beta=-.013$)이 낮아졌다. 매개변수 상실감을 포함한 회귀

Table 7. Mediating effect on sense of loss

(N=380)

step	Variables	B	β	t	F	R ²	adjusted R ²
1	Individu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527	.488	10.860***	117.931***	.238	.236
2	Individual Discrimination → Suicidal Ideation	.390	.408	8.694***	75.579***	.167	.164
	Individual Discrimination → Suicidal Ideation	.262	.274	5.272***			
3	Individual Discrimination,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244	.275	5.301***	54.551***	.224	.220
1	Soci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540	.575	13.666***	186.770***	.331	.329
2	Social Discrimination → Suicidal Ideation	.188	.227	4.523***	20.461***	.051	.049
	Social Discrimination → Suicidal Ideation	-.011	-.013	-.223			
3	Social Discrimination,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368	.416	7.248***	37.892***	.167	.163

p<.05*, p<.01**, p<.001***

분석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차별경험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3단계에서는 자살생각에 대해 사회적 차별경험의 설명력이 16.7%로 2단계의 51.1% 설명력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F=37.892, p<.001$). 따라서 상실감이 사회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로 검증되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는 Table 8와 Table 9와 같다. 개인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에 직접효과($\beta=.488$)가 있으며, 자살생각에도 직접효과($\beta=.408$)를 보였다. 상실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개인적 차별경험은 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효과($\beta=.274$)가 있고, 간접효과($\beta=.199, p<.001$)와 총 효과($\beta=.473$)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Table 8. Total effect,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N=380)

Path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Individu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488***	-	.488
Individual Discrimination → Suicidal Ideation	.408***	-	.408
Individu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274***	.199***	.473
Soci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575***	-	.575
Social Discrimination → Suicidal Ideation	.227***	-	.227
Soci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013	.130***	.117

$p<.05^*, p<.01^{**}, p<.001^{***}$

Table 9. Sobel-test

(N=380)

Paths	Z	p	Mediating Effect
Individu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4.757	.000	Partial Mediating
Social Discrimination → Sense of loss → Suicidal Ideation	6.363	.000	perfect Mediating

이는 노인의 개인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상실감이 부분매개 효과로 검증되었다. 매개효과 유의

성 검증인 Sobel test 결과, 개인적 차별경험-상실감-자살생각 경로($Z=4.757, p<.001$)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사회적 차별경험은 상실감에 직접적 효과($\beta=.575$)가 있으며, 자살생각에도 직접적 효과($\beta=.227$)를 보였다. 상실감의 매개효과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효과($\beta=-.013$)가 유의수준($p<.05$) 이하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간접효과($\beta=.130, p<.001$)와 총 효과($\beta=.117$)의 영향력은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상실감이 완전매개 효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사회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실감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Sobel test 결과, 사회적 차별경험-상실감-자살생각 경로($Z=6.363, p<.001$)로 유의미한 매개효과임을 확인했다.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의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6,10,16]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서 노인의 차별경험에 주목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천적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인 사회적 차별경험은 노년기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낮은 지위는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빈곤률을 악화시킬 것으로 보여 노인의 소득보완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속화되는 디지털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대통합이 아닌 시대통합으로서 노인이 상대적으로 정보와 지식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교육·문화복지에 차별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상실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인차별경험은 상실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노인차별경험과 상실감 간의 관련성이 높다[7,19,20]고 주장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상실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9,16,18]. 이러한 결과는 상실감과 자살생각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선행연구와 일치했으며, 노인의 상실감 수준이 심각할 경우 이를 중단하기 위한 부정적 생각은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28].

셋째, 노인차별경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상실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노인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이 부분매개효과로 확인하였다. 노인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실감의 매개효과 연구가 많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노인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9,10,13],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매개효과를 보인다[16,18]는 선행연구결과를 본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실감이 완전매개효과로 확인하였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4,9],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매개효과를 보였다[18,20]는 선행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가 일치했다. 따라서 개인적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과 상실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상실감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상실감은 자살생각에 위험요인임이 밝혀졌다.

노인차별경험을 낮추고 상실감을 해소하는데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중요하게 검증된 연구결과[6,8,26]를 반영하여 노년기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체계가 가족을 비롯한 동년배 집단 그리고 지역주민간의 관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노년기 경험하는 상실감은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관계망에서의 지지를 통해 노인의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하고 나아가 위기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실천적 개입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프로그램과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구를 지역 위치와 지역 유형에 따라 층화표집하여 노인복지관 10개소 이용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총 380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차별경험의 하위요인인 개인적 차별경험

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다. 둘째, 개인적 차별경험과 사회적 차별경험이 높을수록 상실감이 높아졌다. 셋째, 노인의 상실감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졌다. 넷째, 개인적 차별경험-상실감-자살생각 경로에서 상실감은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차별경험-상실감-자살생각 경로에서 상실감은 완전매개 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과 상실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며, 사회적 차별경험은 자살생각에 상실감을 통해서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차별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상실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노인차별경험, 상실감이 노인의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밝혀 노인자살문제 예방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대상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지역적 확대와 다양한 노인유형(재가노인,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노인, 경로당 이용 노인 등)을 포함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자살생각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실감의 하위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실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http://kostat.go.kr/>
- [2]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ecurity. <http://www.mois.go.kr/frt/a01/frtMain.do>
- [3] Korea Suicide Prevention Center. <http://www.spckorea.or.kr>
- [4] C. R. Kang & Y. T. Cho. (2012). The Effect of Social Discrimination on Suicide Ideati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5(3), 1-27.
- [5] C. S. Rim, G. S. Jang & M. S. Jeong. (2013).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social science research*, 22, 192-223.
- [6] J. E. Lee & J. Y. Lyu. (2017). Suicide among the Elderly in Korea: A Meta-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7(3), 601-616.
- [7] D. N. Lee & N. Y. Kim. (2018). The Effects of

-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the Suicidal Ideation of Older Adults. *The Journal of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9(2), 997-1010.
DOI : 10.22143/HSS21.9.2.79
- [8] Y. S. Jeon & C. G. Heo. (2019). The Role of Social Support for the Influences of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 64-74.
DOI : 10.5762/KAIS.2019.20.1.64
- [9] H. G. Shin. (2012). Effects of the Elderly's ageism Experience on Suicidal thought and Mediating effect of Hopeless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56, 191-215.
DOI : 10.21194/kjgsw..56.201206.191
- [10] K. H. Kim & S. P. Yook. (2013). The effects of Ageism for the Elderly experience on Suicidal behavior: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2), 131-151.
- [11] J. H. Bae. (2009). Factors Affecting Suicide Ideation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4, 49-70.
DOI : 10.21194/kjgsw..44.200906.49
- [12] M. S. Lee. (2012). Does the Social Activity of the Elderly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solation and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0(3), 231-259.
- [13] S. H. Cho & K. M. Kim. (2016). The Effects of the Elderly's ageism and Exclusion experience on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3), 359-387.
DOI : 10.21194/kjgsw.71.3.201609.359
- [14] E. A. Lee. (2018). *The Study of Influences of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Sense of Loss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on Suicidal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 University, Anyang.
- [15] W. Kim. (2003). An Exploratory Study on Ageism Experienced by the Elderly and Its Related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2), 21-35.
- [16] G. S. Choi. (2018).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Loss of Role,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Uiduk University, Gyeongju.
- [17] M. K. Park. (2020). Effects of Depression, Experience of Ageism or Abuse of th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and Living Together on Suicidal Ideation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Their Lifestyle. *Korean Journal of The Correction Welfare Society al Welfare*, 67, 111-141.
DOI : 10.35422/cwsk.2020.67.111
- [18] Y. C. Kim. (2017). *The Effects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the Seniors Mental Health: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los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 [19] H. K. Kim, S. C. Lee & J. S. O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ef of Loss and the Sense of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63(2), 17-32.
- [20] H. G. Shin. (2012). Elderly's path model of passing four major pains on to suicidal thought mediated by hopelessn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7, 357-379.
DOI : 10.21194/kjgsw..57.201209.357
- [21] H. S. Kim. (2002). A Study on Epistemology of Korean Elder's Suicidal Though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159-182.
- [22] H. J. Shu. (2005). *Social Work Intervention Strategies for Preventing Suicide in the Elderly : with special reference to Factors Affecting on Elderly Suidide*.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BuSan University, BuSan.
- [23] E. B. Palmore, (2001). The Ageism Survey: First Findings. *The Gerontologist*, 41(5), 572-575.
- [24] Y. H. Won. (2005). Experiences of Elderly Discrimin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Social Welfare Policy*, 21, 319-339.
- [25] M. K. Jung & K. M. Lee.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the Sense of Loss Scale for Korean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1(2), 397-416.
- [26] J. E. Lee. (2014). *The Influence of Sense of Lo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 [27]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t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6), 1173-1182.
- [28] C. D. Kim. (2014). *Study of influence of role loss in the elderly on suicide thinking : focused on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ve symptoms*.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Gunpo.

이 은 아(Eun-A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문학사)
- 2010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6년 2월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객원교수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노인차별, 노인자살, 사회복지

· E-Mail : 364379@hanmail.net